

韓美大學間 協同의 摸索

— 美國州立大學協會의 活動에 관한 管見 —

金 蘭 洙

(延世大 教育科學大 學長)

大學教育發展에 있어서 大學 및 有關機關間의 相互協同體制의 수립은 教育經費의 절감, 教育 效率의 제고, 學問風土의 개방이란 觀點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특히 今年 6월에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主管하는 AASCU와의 「韓美大學總長合同세미나」는 우리 나라에서도 大學間의 協同體制를 國際化시킨다는 데 그 뜻을 찾을 수 있다.

I. 머리말

지난해 11월 하순, 美國의 San Diego市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海岸都市 Coronado에서는 美國州立大學校協會(AASCU: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의 第23次 年次大會가 개최되었다. 筆者는 今年 6월에 개최예정인 韓國大學教育協議會와 同 協會間의 “國際協力을 위한 韓美大學總長合同세미나”의 프로그램 編成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同協會의 年次大會에 參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全體 358個의 州立大學(校)들이 會員大學으로 構成되어 있는 AASCU의 이번 年次大會의 主題는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未來(Our Roots and Our Future)”이었다. 지난 200년간 꾸준히 발전하여 온 美國의 高等教育에 있어, 衡平의 原則(the vision of equity)에 입각하여 高等教育機

會를 擴大시켜 온 歷史의 뿌리를 自省해 보고, 教育의 質的 秀越性(the vision of educational excellence)을 提高하려는 州立大學의 未來設計를 摸索하려는 것이 同大會의 趣旨이었다.

AASCU의 年次大會는 다른 學術團體나 機構들의 年例會議과 세미나 등과는 근본적으로 特異한 性格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參加者들 自體가 會員大學(校)들로부터 온 350여 명의 總長들과 150여 명의 總長婦人들이었던 점으로 비추어 보면 그들의 關心이나 背景 등에 있어서 지극히 同質的인 集團의 모임이었던 것 같다. 이는 그동안 筆者가 몇 차례 參席한 經驗이 있었던 美國高等教育協會(AAHE: American Association of Higher Education)의 年次學術大會에서와 같이 3,000名 以上の 엄청난 數가 모여서 多岐多樣한 具體的 題目들을 놓고 各者의 研究結果를 發表하고 討議하는 것과는 지극히 判異한 性格을 띠고 있었다. 즉 參加者들 대부분이 大學總長들이고 보면 發表와 協議內容도 大學

의 最高行政責任者인 總長들의 直接的인 主要 關心과들에 焦點이 맞추어졌음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예컨대, 이번 제23차 年次大會에서 發表되고 協議된 內容들의 題目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大學의 教育課程 編成과 運營에 관한 學事行政, 政府 및 公共機關과 大學間의 關係를 다루는 大學政策과 制度的 問題點들, 大學 相互間의 協同 增進을 위한 具體的 方略, 大學教育 改革의 새로운 아이디어들, 外國의 大學들과의 國際的 協力擴大, 그리고 大學(校) 總長들의 指導性開發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年次大會에서 發表되고 協議된 內容들도 重要했지만, 특히 筆者는 이번 機會에 AASCU 라는 組織體가 發揮하고 있는 諸般機能과 그에 따른 具體的 活動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理解하게 되었다. 그리고,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앞으로 同協會와의 紐帶를 先導的으로 樹立함으로써 韓美兩國間의 國際的 協力增進을 통한 兩國의 大學發展을 기하고자 하는 보다 깊은 意義를 發見할 수도 있었다.

이미 지난 「大學教育」誌 3月號에서 금년 6월에 개최될 韓國大學教育協議會와 AASCU의 合同세미나의 趣旨 및 目的에 관해서 상세하게 紹介된 바 있다. 그러나 同 세미나가 이제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음을 생각할 때 우리와의 持續的인 同伴者的 協力關係를 갖게 될 AASCU에 대하여 좀더 폭 넓게 理解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이에 本稿에서는 주로 筆者가 지난 11月 AASCU 年次大會에 參席하여 얻은 갖가지 情報를 기초로 하여 AASCU의 目的과 機能을 概略的으로 살펴봄으로써, 韓美大學間의 實現 가능한 協同方案摸索에 몇 가지 示唆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AASCU의 廣範한 機能遂行을 모두 포괄해서 다룰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우리 나라 大學教育發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활동에 重點을 두고자 한다. 즉, 하나는 國際教育協力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大學의 計劃的 變化를 위한 資源센터의 設置 運營에 관한 것이다.

II. AASCU의 目的과 機能

Puerto Rico, Guam 그리고 Virgin Islands를 포함한 美國 全域에 所在하고 있는 358個 州立大學(校)을 會員으로 構成되어 있는 AASCU는 1961년에 發足되었다. AASCU는 한마디로 美國의 州立高等教育을 代表하는 全國的인 水準의 組織體이다. 美國의 全體 大學生中 1/5에 해당하는 學生들이 會員大學에 在學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全體大學卒業生을 놓고 볼 때 1/5의 卒業生들이 AASCU의 會員大學에서 배출된 바를 감안하면, AASCU가 美國 高等教育에서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莫重하다고 하겠다.

AASCU는 현재 그 本部를 Washington, D.C.에 두고 있으며, 그 財政運營은 會員大學의 會費와 寄附金 및 研究用役收入 등에 依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982~83 會計年度의 경우, AASCU의 年間支出經費는 約 252萬非이었으며, 이 가운데 會員大學의 會費로 充當된 것은 約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AASCU는 모든 會員大學들의 教育目的을 근본적으로 “供與할 수 있는 教育(affordable education)” 體制로 志向할 것을 내세움으로써, 大學教育을 學生 個個人의 能力과 知識에 적합하도록 힘써으로써 스스로 選擇한 專門的 生涯를 準備시키고 學生들이 卒業後 社會에 나가, 國家發展의 要求에 부응하도록 하는 데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 AASCU는 本質的으로 會員大學間의 協議機構이다. 따라서 個別的이기보다는 共同의 合意에 基礎하여 모든 活動을 遂行한다. 예컨대, 國家全體의 高等教育政策開發이라든가 大學教育의 質的 向上을 追求하기 위한 課業은 물론, 各 大學마다의 制限된 資源의 協力的인 相互 共同活用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AASCU 會員大學들은 自律的인 協力體制를 구축하여 對處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AASCU는 일반 大衆의 高等教育에 대한 要求와 壓力, 財政의 支援 그리고 諸般 社會的 變化에 따른 大學教育의 刷新 등에 대해서도 協同的인 對處를 先導的으로 主管하고 있다.

AASCU는 美國의 高等教育發展에 있어서 核

心的인 指導의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특히, AASCU는 美國 大學教育의 質的 水準의 向上, 大學에 대한 聯邦政府의 支援誘致, 高等教育에 관련된 聯邦政府 水準의 諸般立法, 學生들에 대한 財政支援 強化, 國際理解教育의 增進, 그리고 教授開發 등의 部門에서 뛰어난 지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AASCU의 그러한 役割遂行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계의 프로그램 部署를 통하여 展開되고 있다.

1. 캠퍼스 資源計劃 및 開發 部署

이 部署에서는 會員大學들의 캠퍼스에 대한 共通의 關心이 되는 奉仕事業을 相互交流할 수 있는 各種 프로그램과 特別 프로젝트들을 提供한다. 이 部署에는 아래와 같이 6個의 局을 常設하고 있으며, 23個의 常任委員會(2個의 特別委員會 포함)를 設置하고 있다.

- ① 農業, 再生可能資源 및 農村開發局
- ② 協同研究 및 情報資源局
- ③ 聯邦政府 財政支援 프로그램局
- ④ 計劃的 變化 資源센터
- ⑤ 都市問題局
- ⑥ 軍人の 大學教育機會局
- ⑦ 常任委員會
 - a. 高等教育 改革 委員會
 - b. 大學教授 및 學問的 自由 委員會
 - c. 業績評價認定 委員會
 - d. 農村開發 委員會
 - e. 協同研究 委員會
 - f. 體育 委員會
 - g. 通信技術 委員會
 - h. 會議 및 專門人力開發 委員會
 - i. 文化藝術 委員會
 - j. 에너지 및 環境 委員會
 - k. 大學行政 委員會
 - l. 大學院研究 委員會
 - m. 保健問題 委員會
 - n. 人文科學 委員會
 - o. 國際 프로그램 委員會
 - p. 國家奉仕 委員會
 - q. 政策開發 委員會
 - r. 科學技術 委員會

- s. 學生問題 委員會
- t. 學部教育 委員會
- u. 都市問題 委員會
- v. 教育的 平等 研究 特別委員會
- w. 教育的 卓越性 研究 特別委員會

2. 政府關係 部署

이 部署에서는 주로 聯邦政府나 聯邦議會에 대한 接觸活動을 벌인다. 특히, 高等教育에 대한 主要政策의 樹立이나 立法過程에 있어서 全體州立大學(校)들의 合意된 意思를 反映시킬 뿐만 아니라, 州立大學(校)의 經營管理 등의 諸般 側面에서 영향받게 될 여러 가지 問題들에 대한 仲裁役割을 遂行한다. 이 部署의 그러한 活動은 비단 聯邦政府 水準에만 局限되는 것은 아니다. 各 州政府나 州議會는 물론 各種 研究費 支援機關이라든가 社會機關 등까지 仲裁活動이 擴散되고 있다.

各 會員大學(校)들의 對聯邦政府나 議會關係樹立 및 活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部署에서 “AASCU Congressional Directory”, “AASCU on Capitol Hill”, “Actiongrams(Memo: To the President)” 등을 出版·配布하며, 各 會員大學(校)의 總長들이 聯邦政府의 主要 委員會에 代表로 參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3. 國際 프로그램 部署

後에 章을 달리하여 紹介하겠으나, AASCU의 特性中的의 하나는 強力한 國際關係 活動 프로그램이다. 이 部署에서는 教育課程의 編成과 運營의 國際化(globalization), 國際的 開發에 있어서 AASCU 會員大學(校)들의 資源 相互活用, 그리고 國際教育 增進에 관계되는 聯邦政府나 私立財團, 國際機關 등의 政策樹立에 있어서 영향력의 발휘 등 세 가지 側面に 重點을 두고 있다. 國際 活動 프로그램의 根本的인 目標은 現代社會에서 漸增하는 國家間的 相互協助 및 相互依存에 비추어 AASCU 會員大學(校)들이 國際的 役割과 責務를 遂行하도록 促進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Ⅲ. 國際教育協力體制的 樹立

AASCU는 1975年 11月, Boston에서 개최된 제15차 年次大會에서 AASCU의 國際的 責務遂行에 대한 政策方向을 채택한 바 있었다. 이 때 그들은 오늘날 全世界的으로 加重되고 있는 國家間的 相互協同에 부응하기 위하여, AASCU의 會員大學(校)들은 그들의 教育課程에 있어서 國際的 役割을 진지하게 檢討·計劃·施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었다. AASCU는 이와 같이 高等教育的 國際化를 會員大學(校)의 教育課程 構成의 核心原理로 받아들임으로써 各大學은 모든 學生들로 하여금 世界社會에 存在하는 多様な 文化의 力動的인 相互關係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갖추도록 努力하고 있다. 人間의 삶의 條件에서 법제제적인 改善을 가져 오기 위해서는 지난날 大學教育에 쾩배하였던 自民族中心主義(ethnocentrism) 또는 國粹主義(parochialism)를 除去하고 國際的 孤立으로부터 탈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 教育課程 構成에 있어서 國際教育은 결코 周邊의이거나 附加的인 것이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教育의 中核이 되어야 할 것이다.

國際教育은 教育課程의 國際化 또는 國際的 內容을 포함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國際教育은 教授와 學生들의 國際的 交流移動, 世界各國의 大學間的 技術支援 및 開發을 위한 國際的 協力 프로그램의 交流를 통한 相扶相助를 增大시키는 일까지 포함한다.

AASCU의 國際教育協力體制는 1980년에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Universities and Land-Grant Colleges 등 3個 團體와 AASCU가 제휴하여 세운 "Consorti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 (CICHE)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CICHE는 현재 美國의 全體 高等教育體制가 全世界 高等教育에 接近하는 하나의 中心的인 海外接觸窓口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CICHE에서 현재 2,000個校 이상의 美國 高等教育機關이 세계 50個國 以上の 수많은 大學들과 接觸하고 있다. CICHE가 外國 高等教育機關과의 接觸을 위해 奉仕하고 있는

領域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區別된다.

① 訓練과 教育

各國의 高等教育 關係者들의 指導性, 經營管理機能의 訓練, 學部와 大學院生들의 訓練과 教育을 위한 現場 短期 워크샵, 세미나 등 實施

② 技術協力 및 支援

各種 專門分野의 技術, 教育計劃, 教育經營管理, 教育課程開發, 成人 非形式短期教育, 등 諸部面에서의 技術協력과 支援

③ 交換 프로그램

教授, 行政家, 學者 및 學生들의 交流와 資料 및 情報의 交換

④ 協同研究 및 評價

2個 國家間 또는 多國家間的 協同調査, 協同研究, 協同管理 및 協同出版 등

AASCU는 또한 獨自的으로 "AASCU Consorti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를 設置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技術訓練을 支援하고 있다. AASCU는 會員大學(校)들에 대하여 月 2回 刊行的 "International Memo"를 보내줌으로써, 各會員大學(校)으로 하여금 國際教育의 발전 추세, 海外 장학금의 機會, 外國의 改革的인 國際的 프로그램이나 專門家會議 등에 대한 理解를 深化시킬 수 있도록 情報活動 奉仕를 하고 있다.

1982~83 會計年度에 遂行된 AASCU의 主要 國際教育 協力活動을 살펴보면, 우선 教授開發 프로그램으로 AASCU는 "이슬람, 중동 그리고 世界政策"이란 主題下에 短期 워크샵을 實施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지도자를 위한 외교정책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인도, 중공, 캐나다, 자유중국,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의 大學들과 AASCU 會員大學(校)과의 자매결연을 맺었다. 아르헨티나 및 콜롬비아의 教育者들을 위한 美國內 短期 인턴프로그램을 AASCU 會員大學(校)들의 協同下에 實施하기도 하였다. 1983年 4月에는 AASCU 會員大學(校)들의 代表들이 브라질을 방문, 브라질의 大學關係者들과 協議會를 개최하였다. 1984년에는 이러한 兩國間的 高等教育發展을 위한 會議을 나이지리아, 韓國, 태국, 쿠바, 필리핀, 그리고 中共과 개최할 예정인 바,

이번에 개최될 韓國大學教育協議會와 AASCU의 共同主管 合同세미나가 바로 이에 속한다. 1983年 3月에는 會員大學(校)들의 國際教育 프로그램 開發을 돕기 위한 “教育課程과 캠퍼스의 國際化”라는 主題의 워크숍을 會員大學(校)代表들의 參席下에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類의 워크숍은 해마다 몇 차례씩 美國內에서 地域을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다.

AASCU의 이러한 國際教育協力體制의 活性化를 위한 모든 活動은 美國의 高等教育이 결코 外國의 그것으로부터 孤立될 수 없고, 外國 高等教育과의 相互協力體制 속에서 相互間의 發展要求와 改善壓力에 共同對處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各國의 독특한 高等教育體制의 특징과 개혁을 相互尊重하면서 그것으로부터 함께 배우며 생각함으로써 汎世界的인 高等教育의 發展을 追求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 이번 6月에 개최되는 韓美大學總長合同세미나는 두 協議機構가 平等한 位置에서 兩國의 大學問題와 發展課題에 대한 相互協力體制를 구축하게 되는 매우 重要한 意義를 지니게 된다고 하겠다. 특히 發足한 지 不過 3년도 채 되지 않은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世界各國의 高等教育 專門機構들과 紐帶를 形成하여 韓國高等教育이 世界的인 眼目에서 發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先導的 役割을 發揮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意義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Ⅳ. 計劃的 變化를 위한 資源센터

計劃的 變化를 위한 資源센터는 AASCU의 3個 主要部署 中 캠퍼스 資源計劃 및 開發部署에 속하는 데 이 중에서도 가장 代表的이고 核心的인 活動을 하고 있다. 計劃的 變化를 위한 資源센터는 근본적으로 會員大學校의 未來計劃을 樹立하고 그것에 따른 改革을 實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資源센터이다. 오늘날 各 大學(校)이 當面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條件들은 大學으로 하여금 各各 自體分析的 研究와 改革遂行에 대한 壓力을 加重시키고 있는 바, 이러한 各 大學의 切實한 要求에 부응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計劃的 變化를 위한 資源센터의 구실이다.

이 센터는 1975년에 W.K. Kellogg 財團의 財政的 支援으로 AASCU에 설치되었으며, 1978년에는 이 센터를 AASCU의 永久機關으로 存續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會員大學들에 대한 改革의 촉매체로서 또는 새로운 改革 아이디어의 源泉으로서의 役割遂行을 基本責務로 하는 이 센터는 各 會員大學(校)에서 指名한 센터 協力研究委員들로 構成되어 있다. 各 會員大學(校)은 自己大學에서의 上級 學事行政責任者를 協力研究委員으로 指名하고 있는 바, 현재 美國 全體 州立大學(校)에서 약 300名 以上이 參加하고 있다. 이들 協力研究委員들은 주기적으로 만나서 各 大學의 改革發展에 대한 密度 높은 意見交換과 워크숍 등을 실시한다. 예컨대, 매년 가을에는 美國 全域을 四個地域圈으로 나누어서 地域別로 3日間의 세미나를 實施하며, 봄에는 이들이 全部 함께 모여 全國세미나를 實施한다. 또한, 每年 여름에는 年中 各 大學에서 개발된 새로운 改革 아이디어를 모으고 檢討하는 夏季 研究모임을 개최한다.

計劃的 變化를 위한 資源센터는 設立된 以後 지금까지 大別하여 다섯 가지의 커다란 業績을 成就하였다. 우선 1976~77 學年度에는 大學의 長期計劃 接近模型을 開發하였다. 大學의 未來計劃 樹立은 社會發展 變動趨勢와 價値變化에 기초하여, 大學社會의 모든 構成員들의 積極적인 참여, 그리고 個個人의 能力을 최대한 고려하여 體系的으로 그리고 構造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基本前提下에 10단계의 未來計劃樹立模型을 開發한 것이다. 이 모델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大學體制의 모든 要素들에 대한 社會變化의 關係를 探索하고 그리고 그러한 未來의 條件들이 大學의 教育政策開發과 教育課程設計에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探索함으로써 大學의 未來發展計劃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現在 거의 모든 會員大學(校)은 물론 餘他 大學들에 의해서도 널리 活用되고 있다고 한다.

1977~78 學年度에는 大學의 教育프로그램을 評價하기 위한 模型을 開發한 바 있다. 이는 특

히 大學에 대한 業績評價가 外形的인 量的 側面에 치중되어 온 바, 이를 탈피하여 大學教育의 質을 評價할 수 있는 模型을 개발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이 模型에서는 評價過程을 5단계로 設定하고, 또한 各 學問領域間的 橫的 連繫를 통한 思考技能을 評價하기 위한 方略을 摸索하고 있다. 이 模型은 지금까지의 大學教育이 단순한 知識注入을 통한 知識의 傳授에 치우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보다 基本的인 知的技能의 涵양을 통한 大學教育의 質 改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觀點에서 의사소통 능력, 分析과 綜合力, 價値化 能力 등의 評價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 模型은 開發된 이후 많은 大學들에 의해 創意的인 自己 評價의 手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아도 그 模型의 效率의 보편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어서, 1978~79 學年度에는 大學에서의 集團過程을 活用하는 指導性 問題에 대한 本格的인 探索을 實施하였다. 특히 팀 接近(team approach)을 통한 大學에서의 組織經營管理의 새로운 發展의 方案들을 樹立함으로써 會員大學(校)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또한, 1979~80 學年度에는 大學의 教育課程開發에 대한 戰略을 樹立한 바 있었으며, 1980~81 학년도부터는 會員大學間的 相互交流訪問 프로그램을 開發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週期的인 機關間的 交換 프로그램에는 現在 30餘個 會員大學(校)들이 參與하고 있는 바, 이 프로그램의 效果는 근본적으로 各 大學 教授나 行政家들로 하여금 우선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大學에 대한 自體研究와 探索을 권장하며, 소속 大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理解와 통찰에 기초하여 他大學을 보고 생각을 相互交換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각기 所屬大學과 專攻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大學의 문제를 논의하고, 教授나 研究 또는 教育課程에 관련된 經驗과 知識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서로의 發展을 고무하고 촉진시킨다는 점은 매우 意義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뜻은 現在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會員大學(校)에 대한 評價活動을 展開하면서 實施하고 있는 現場訪問 協議過程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다. 비록

同 協議會의 參加者數가 적고 專攻領域이 제한되어 있으나, 종래의 一方的인 評價方式에서 벗어나 現場을 訪問한 評價팀의 教授들과 그 大學의 教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問題를 놓고 진지하게 協議하고 의견을 交換하고 있다는 점에서, AASCU의 機關相互間的 訪問交流와 다소 相値되는 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以上에서 밝힌 것 이외에도 計劃的 變化를 위한 資源센터는 長期 大學發展計劃 樹立에 관련된 “프로그램 資源 뱅크”를 運營하고 있으며, 또한 現場相談 活動을 展開함으로써, 各 大學의 自體發展計劃 樹立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V. 맺는 말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SCU의 根本精神은 大學 相互間的 協同體制를 보다 效率的으로 樹立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것은 비단 會員大學(校)間的 [協同에만 局限되지 않고, 世界의 大學(校)들로 擴大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大學間的 協同體制樹立은 우리 나라 大學 또는 全體高等教育發展에 있어서도 매우 時急한 先決課題의 하나임은 이미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主張되어 왔다. 특히 韓國의 高等教育體制 속에서 大學 또는 機關間的 相互 協同體制的 樹立은 教育經費의 節減, 教育效率의 提高, 그리고 學問風土의 開放이라는 세 가지 觀點에서 그 必要性이 절실하다.

大學間的 協同體制的 樹立은 근본적으로 大學人들간의 協議에 맡겨져야 하는 것이다. AASCU가 主唱하고 있듯이, 大學人들의 積極적인 참여와 合意에 기초한 大學人들의 自律的인 努力이 協同體制樹立의 關鍵이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 나라의 大學(校)들이 지니고 있는 學術研修와 高級人力養成의 資源들은 高貴한 것이고 또한 그만큼 限定性을 띤 것이다. 크게는 國家的 資産이라고 해야 할 이들 稀貴한 資源들은 民族文化暢達의 創造의 觸媒인 大學校育의 振興을 위한 協同體制 構築에 相互開放함으로써 그 活用效率를 極大化할 때, 비로소 本然의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韓國大學教育協會가 이제 그러한 大學間的 協同體制 構築의 仲裁的 窓口役割을 遂行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研究와 探索을 시도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다. AASCU가 展開하고 있는 여러 가지 多樣한 活動들은 앞으로 우리 나라 大學間的 協同體制樹立에 있어서 參考資料로 크게 活用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특히, 이번 6월에 AASCU와 共同主管으로 갖게 되는 韓美大學總長의 合同 세미나는 우리 나라에서도 大學間的 協同體制를 國際化시킨다는 데에 그 뜻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더욱 큰 意義는 이제 그동안 大學間的 協同體制 樹立에 많은 經驗을 누적시킨 그들과 함께 大學의 共通的인 문제점들에 대한 解決代案을 함께 모색하며, 그 方略을 강구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번 모임

의 全體主題가 國際協力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分科協議로 이루어지게 되는 세 가지 주제, 즉 教授開發, 學事運營에 있어서의 協同方案 그리고 大學資源의 共同活用の 주제들은 앞으로 한국의 高等教育體制에서 大學 相互間的 協同體制 樹立에 많은 實踐的인 方案들을 강구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大學은 한 나라의 高貴한 資產이다. 그것은 반드시 保護되고 또 가꾸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外部의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大學人들 스스로 自律的인 協力과 相互依存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것이다. 機關相互間的 協力, 그것은 韓國 大學發展의 必須的인 關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